

2024년 07월 03일 27주간

제24-29호
목장성경공부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02 2613-2080 . 2683-2080
FAX 02 2689-1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제26과

성화와 그 유익

성경말씀

골로새서 3장 1~10절(신약p.325)

암송구절

골로새서 3장 10절(신약p.326)

찬 송

찬송가 449(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52(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 문 이 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사람, 새 인류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거룩한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보충설명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땅의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옛 사람에 속한 것으로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위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에 속한 것으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합니다.

2. 땅에 있는 지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입니다.

보충설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땅의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란’은 결혼 관계 밖의 모든 성관계를 말하며, ‘부정’은 그에 따른 더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사욕’은 채워지지 않을 만큼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이며, ‘악한 정욕’은 자신만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 만족하려는 모습이므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3.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보충설명

새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변화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동도 달라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성화는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묵상 이야기

탁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독학을 하면, 몸으로부터 앞으로 공을 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서부터 머리를 가로질러 왼쪽까지 쓸어 넘기는 스윙이 정식 동작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하루에 2천 번씩 한 달을 연습했습니다. 연습 중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요구하시며 변화되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선택과 훈련과 승리의 기쁨을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책임’입니다. (박영선, 『성화』, 복 있는 사람)

나눔

-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누어 봅시다.

기도

-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적용

- 땅에 있는 지체에 해당하는 죄를 죽이는 일에 힘쓰시다.